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erception and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장수생활과학연구소

교 수 전 귀 연*

영남이공대학 사회복지·보육과

전임강사 배 문 조**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 / Center for Beautiful aging

Professor : Jeon, Gwee-Yeon

Dept. of Social Welfare · Childcare,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Full-time Lecturer : Bae, Moon-J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erception and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723 adults from Daegu and Kyungpook.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 for preparing their old age according to the personal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 marriage status, occupation and income.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 for preparing their old age according to the elderly-related variables such as taken the elder program, interests in media for elderly, the opinion on living together with the aged, contact with aged and the opinion about contact with aged.

Thir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according to the personal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religion, education, marriage status, occupation and income.

Finall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according to the elderly-related variables such as taken the elder program, interests in media for elderly, the opinion on living together with the aged and the opinion about contact with aged.

▲주요어(Key Words) : 노후준비의식(the perception for preparing their old age), 노후준비행동(the behavior for preparing their old age)

I. 서론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9년 10.7%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통계청, 2009).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출산율의 저하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가족의 부양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노년기를 맞이할 성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해

* 2008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전귀연 (E-mail : gyjeon@mail.knu.ac.kr)

** 교신저자 : 배문조 (E-mail : moonjonim@hanmail.net)

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대한상공회의소(2005)에서 조사한 '직장인 노후준비실태 조사'에 의하면 노후자금으로 적정한 금액은 3억 원~4억 원이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40%를 넘고 있다. 연령별로 노후대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20대 48.9%, 30대 64.8%로 2년 전 조사에 비해 직장인의 노후준비도가 2배 이상 증가하여 젊은 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노년기도 길어져 그 만큼 노후준비가 더 일찍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은 연금제도의 미성숙, 과거 직업생활의 불안정과 저임금 종사, 조기퇴직, 자녀양육비 및 결혼비용의 과다지출, 가족의 부양외식 약화, 개인적 노후준비 미흡, 은퇴 후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일찍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개될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빈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노인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상 문제, 주거에 관한 문제, 가족생활에 관한 문제, 여가활용에 관한 문제, 은퇴 이후에 관한 문제 등 보다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동안의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통한 준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노년기를 앞둔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년준비의식 정도와 노년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대다수(강영숙, 2005; 김정화, 2005; 김기태, 2004; 송명숙, 2002)이며, 노후준비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임경자, 2002) 등이 있다. 이처럼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김기태, 2004; 김인숙, 2004; 조미영, 2006)은 노후준비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준비로 나누어 살펴보거나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인숙, 2004; 임경은, 1999; 조추용 등, 2009; 최성재, 2009)들이 많아 젊은층의 노후에 대한 인식확대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지금까지 주로 노년기의 문제로 인식되어 은퇴자 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중년층의 조기퇴직 현상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가 발생하면서 전 연령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악화로 인하여 생활비용이 증가하는데 비해 직업역할 및 사회적 역할 상실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소외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노후에는 신체적,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준비도 필요하다.

노후준비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다룬 연구들이 많은데(김은정, 1993; 이지은, 2000; 최점수, 1994)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러한 요인들을 반영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관련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이재모·이신영, 2005), 노인의 지식을 증가시키는(이정희 등, 2007) 것으로 미루어 보아 노인관련 프로그램 수강경험이 노후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인과의 동거경험과 접촉경험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이나진, 2006; 임영신 등, 2002; 한정란, 2000) 자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노인관련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의식을 노후준비시기에 대한 것, 국가정책에 대한 의식, 신체적 준비 의식, 경제적 준비의식, 여가준비의식 및 주거준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자신의 노후준비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노후준비행동을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준비를 포함하여 최근 노후생활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는 여가준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준비의식

우리나라 직장인은 현재의 직업상태를 대신해줄 수 있는 노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인 대비가 부족하다. 노후 경제생활 보장의 주요 근원이 되는 퇴직금 및 노후연금제도가 미흡하고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용상태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제한되어 있어 노후 생활이 예측불가능한 두려움의 시간으로 남아있게 된다(배문조, 2006). 따라서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후준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제약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30대부터가 좋다'고 보고한 연구(김정표, 2005; 박정희, 2007; 성말순, 2004; 송석진, 2004; 전진우, 2002)가 대부분으로 노후준비는 30대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도시저소득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경은(1999)의 연구에서는 노후준비 시기를 20·30대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부터' 32.2%, '50·60대부터'가 13.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노후준비 시기에 대한 인식은 고학력일수록 젊어서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한

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윤종대, 2002), 월소득과 직급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는 6%에 그쳤고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우복(1993)은 노년기의 생활에 대한 준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양에 대한 노후준비가 중년기부터 이루어졌을 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여 노후준비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년기 이후 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생활 인식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사회적, 복지적, 노후생활전망으로 나누어 살펴본 최성재(2009)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하고자 하는 희망을 보였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참여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의식에 있어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자신들은 자녀양육과 교육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연호(2007)의 연구에서는 노후대책 준비시기로 '30대'라고 응답한 사람이 52.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측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82.6%, 노년의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낼 일자체가 필요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41.8%로 나타나 긴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지은(2000)은 중년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계획 실태를 파악한 결과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고 노후 경제생활계획은 현재 자신의 연령보다 앞선 시기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우(2002)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4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의식과 현재의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후생활의식에서 노년이 되는 시기는 '65세부터'가 34.9%로 가장 많았고, 노후 경제준비에 대한 시작 시기는 '30대부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30대를 포함하여 이들의 특성에 따라 노후준비의식과 행동을 살펴봄으로써 노후준비에 대한 오늘날의 관심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노후준비행동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후준비유형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준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조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계희(1989)의 연구에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준비로 분류했으며, 황승일(2000)은 신체적, 경제

적, 정서적, 여가준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노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유병률이 높고 질병자체도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고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요구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가 일찍부터 마련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함께 수반하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 이우복(1993)의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건강이라고 나타났으며 임경자(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하였다. 배계희(1989)에 의하면 노후준비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건강문제이지만 실제로는 노후 건강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나타나 노후준비의식과 실제 노후준비 행동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노후 생활비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서적, 심리적 위축, 가족관계, 친구관계, 건강 및 여가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현재 근로자들의 퇴직 후 소득보장책은 퇴직금이라 볼 수 있는데, 특별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규모가 적거나 일시금으로 지불되고 있어 조기정년 상태에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차경옥 등(2008)은 20-30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후대비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50%가 은퇴재무설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보다는 30대에서, 기혼자, 전문관리직 종사자, 자가보유자가 은퇴 후 재무설계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오늘날의 경제적 준비에 있어 젊은 세대들의 가치와 관심이 과거보다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McKenna와 Nickils(1988)은 노후안정을 위한 계획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이 노후계획에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노후경제준비에 관한 연구(이행숙, 1996)에서는 노후준비의식이 높을 때 준비행동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노년기의 정서적인 문제는 건강 및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노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신미혼여성들의 노후인식에 관한 신은식(2002)의 연구에서는 독신미혼여성들은 심리·정서적 준비,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순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이들이 심리·정서적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구자는 독신미혼여성들이 아직 우리사회에서 소수자라는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노후 삶에 대해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으며 자기 안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노년기의 정서적 변화는 정년퇴직, 배우자 사별, 친구의

죽음 등 주로 역할 상실에 의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 상실로 인해서 이제까지 가져왔던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노년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가활동이 있는데, 많은 선행연구(송석진, 2004; 이지은, 2000; 임장순, 1990)에서 노후에 종교 및 취미활동과 같은 여가생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가방법을 조사한 성말순(2004)의 연구에서는 노후의 여가활동으로 신체적 활동이 가장 많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노후를 위한 준비에는 신체적 건강,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및 여가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1) 노후준비의식

노후준비의식은 박지선(2004), 김정표(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하위변인으로 노후준비 시기 2문항, 정부정책에 대한 의식 4문항, 노후 건강에 대한 의식 3문항, 노후 경제준비에 대한 의식 4문항, 노후 여가준비에 대한 의식 3문항, 노후주거에 대한 의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Cronbach α 는 .68, .81, .81, .82, .77, .61이다.

2) 노후준비행동

노후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배계희(1989), 황승일(2000), 김기태(2004)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은 신체적 준비행동 9문항, 경제적 준비행동 8문항, 여가준비행동 7문항, 정서적 준비행동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Cronbach α 값은 .88, .82, .79, .70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인들의 노후준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2008년 9월 20일부터 10월10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30~59세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8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부실기제를 제외한 72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affé의 사후검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성이 49.4%, 여성이 50.6%이며 연령에서는 30대가 39%, 40대는 33.3%, 50대는 27.7%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47.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고졸 35.4%, 대학원이상 11.8%, 중졸이하 5.3%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3.3%, 기혼이 84.4%이며, 주관적 건강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3%, 보통은 58.2%, 좋은 편은 30.4%로 나타났다. 소득은 2008년 통계청의 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57만7000원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257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본인소득 없음이 26.4%, 257만원 이하가 44.7%, 258만원 이상이 28.9%로 나타났다. 배우자 소득은 없음이 44.8%, 257만원 이하가 32.1%, 258만원 이상이 19.5%였다. 직업에서는 전문직이 19.2%, 관리직 4.0%, 사무직 28.6%, 판매서비스직 14.9%, 생산직 9.1%, 주부이거나 무직인경우도 24.1%이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51.7%, 있는 경우 48.3%였으며, 동거경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55.6%, 보통은 30.9%, 부정적은 13.5%로 전체적으로 동거경험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관련 프로그램 수강경험은 없는 사람이 89.3%로 대부분이 경험이 없었으며, 노인관련 매체의 관심도는 보통이 62.9%, 적은편 20.6%, 많은편이 16.5%였다. 노인과의 접촉빈도에서는 일주일 미만마다 만난다는 사람이 53.8%, 일주일 이상마다 만난다는 사람이 46.2%였고 접촉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사람이 58.8%로 가장 많았고 보통은 36.9%, 부정적 4.3%로 전반적으로 노인과의 접촉경험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23

변 수	구 분	빈도(%)	변 수	구 분	빈도(%)
성 별	남	357(49.4)	노인동거유무	동거경험 없음	374(51.7)
	여	366(50.6)		동거경험 있음	349(48.3)
연 령	30대	282(39.0)	동거경험에 대한 생각 ^a	긍정적	194(55.6)
	40대	241(33.3)		보 통	108(30.9)
	50대	200(27.7)		부정적	47(13.5)
종 교	무 교	224(31.0)	노인관련 프로그램 수강경험	있 음	77(10.7)
	기독교	240(33.2)		없 음	646(89.3)
	천주교	69 (9.5)	노인관련 매체관심정도	관심적은편	149(20.6)
	불 교	187(25.9)		보 통	455(62.9)
	유 교	3 (0.4)		관심많은편	119(16.5)
학 령	중졸 이하	38 (5.3)	노인과의 접촉빈도	일주일 미만	389(53.8)
	고 졸	256(35.4)		일주일 이상	334(46.2)
	대 졸	344(47.6)	접촉경험에대한 생각	긍정적	425(58.8)
	대학원 이상	85(11.8)		보 통	267(36.9)
결혼상태	미 혼	96(13.3)	직 업	전문직	139(19.2)
	기 혼	610(84.4)		관리직	29 (4.0)
	결혼 후 독신	17 (2.4)		사무직	207(28.6)
주관적건강	나쁜편	82(11.3)		판매서비스직	108(14.9)
	보 통	421(58.2)		생산직	66 (9.1)
	좋은편	220(30.4)	주부, 무직	174(24.1)	
본인소득	없 음	191(26.4)	배우자소득 ^b	없 음	273(44.8)
	257만원 이하	323(44.7)		257만원 이하	196(32.1)
	258만원 이상	209(28.9)		258만원 이상	141(19.5)

a: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있는 349명

b: 결혼상태에서 기혼자 610명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을 살펴보면 노후의 국가정책에 대한 의식을 제외하고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후준비시기에 대한 의식 및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준비, 주거준비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나 여성의 노후준비의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이 노화에 대해 남성보다 더 관심을 보이는(이정화·이옥순, 2007)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긴 여성이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서는 30대와 40대보다 50대가 노후준비시기에 대한 의식이 낮으며, 경제적 준비에 대한 의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 40대가 노후준비시기에 대해 '노후준비를 취업 후 바로 시작해야 한다.'와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정년제 폐지와 조기퇴직이 보편화된 우리사회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생

각이 젊은층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후의 국가정책에 관한 의식 및 주거준비의식에서는 30대가 50대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젊은층이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노후의 자신의 주거에 대해서도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의식에서는 기혼자와 결혼 후 독신인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 후 독신자보다 기혼자가 노후준비를 더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노후준비를 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차경옥 등(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직업에서는 여가준비의식에서 차이를 보여 판매생산서비스직보다는 전문관리직에서 여가에 대한 준비의식이 높게 나타나 노후생활을 위한 취미나 여가활동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득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258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여가에 대한 준비 의식이 높게 나타나 총자산과 저축이 많은 사람이 여가생활계획을 잘한다는 이지은(2000)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잉여자금으로 여가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표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

N=723

		N	노후준비	노후의	신체적	경제적	여가준비	주거준비
			시기	국가정책	준비	준비		
			M(SD)	M(SD)	M(SD)	M(SD)	M(SD)	M(SD)
성 별	남	357	3.90(.78)	4.15(.57)	4.31(.58)	4.22(.54)	4.06(.57)	4.04(.78)
	여	366	4.08(.69)	4.22(.55)	4.50(.48)	4.42(.47)	4.20(.53)	4.38(.60)
	F		10.021**	2.622	22.595***	27.945***	10.474***	44.272***
연 령	30대	282	4.02(.72)a	4.25(.57)a	4.39(.54)	4.36(.51)a	4.16(.53)	4.27(.67)a
	40대	241	4.07(.71)a	4.19(.53)ab	4.46(.50)	4.36(.50)a	4.15(.56)	4.25(.70)ab
	50대	200	3.85(.74)b	4.08(.57)b	4.35(.57)	4.23(.53)b	4.06(.59)	4.09(.78)b
	F		5.250**	5.681**	2.262	4.767**	1.935	2.011*
종 교	없음	224	3.98(.79)	4.16(.56)	4.44(.54)	4.37(.53)	4.09(.56)	4.26(.74)
	있음	499	4.00(.72)	4.19(.56)	4.38(.54)	4.30(.51)	4.15(.55)	4.19(.70)
	F		.077	.360	1.797	2.359	1.688	1.214
학 력	고졸 이하	294	3.94(.74)	4.15(.55)	4.42(.50)	4.29(.51)	4.08(.55)	4.16(.70)
	대졸 이상	429	4.03(.74)	4.21(.56)	4.39(.56)	4.34(.52)	4.17(.56)	4.25(.72)
	F		2.415	1.857	.339	1.562	4.563*	2.443
결혼상태	미혼	96	3.88(.72)ab	4.23(.60)	4.28(.59)	4.30(.53)	4.12(.58)	4.24(.61)
	기혼	610	4.02(.74)a	4.18(.55)	4.42(.52)	4.33(.51)	4.13(.55)	4.21(.73)
	결혼후 독신	17	3.58(.83)b	4.13(.55)	4.31(.61)	4.32(.49)	4.09(.74)	4.26(.61)
	F		4.216**	.473	3.233	.073	.068	.127
직 업	전문관리직	168	4.09(.74)	4.26(.57)	4.40(.56)	4.38(.55)	4.22(.61)a	4.25(.73)
	사무직	207	3.96(.73)	4.14(.53)	4.41(.50)	4.30(.50)	4.13(.51)ab	4.19(.70)
	판매생산 서비스직	174	3.97(.75)	4.18(.57)	4.39(.54)	4.32(.49)	4.05(.58)b	4.16(.79)
	주부·무직	174	3.95(.75)	4.17(.58)	4.41(.56)	4.30(.52)	4.12(.52)ab	4.25(.64)
	F		1.409	1.587	.074	.959	2.572*	.735
본인소득	없음	191	3.96(.74)	4.16(.60)	4.41(.54)	4.29(.52)	4.10(.55)a	4.24(.69)
	257만원 이하	323	4.00(.73)	4.19(.55)	4.36(.54)	4.31(.52)	4.09(.58)ab	4.18(.70)
	258만원 이상	209	4.01(.75)	4.19(.55)	4.46(.52)	4.37(.49)	4.22(.53)b	4.23(.75)
	F		.186	.165	2.098	1.186	3.888*	.620
배우자소득	없음	273	3.97(.75)	4.15(.53)	4.35(.53)a	4.23(.51)a	4.08(.52)	4.08(.76)a
	257만원 이하	196	4.02(.72)	4.20(.58)	4.46(.51)ab	4.38(.51)b	4.15(.63)	4.25(.73)ab
	258만원 이상	141	4.13(.74)	4.20(.56)	4.51(.52)b	4.43(.50)b	4.20(.46)	4.39(.64)b
	F		2.234	.733	4.788**	8.415***	2.293	8.624***
주관적건강	나쁜편	82	4.03(.77)	4.21(.54)	4.43(.56)	4.35(.49)	4.18(.55)	4.26(.64)
	보통	421	3.93(.74)	4.18(.56)	4.38(.54)	4.31(.52)	4.09(.54)	4.19(.72)
	좋은편	220	4.09(.73)	4.18(.57)	4.43(.52)	4.35(.51)	4.18(.59)	4.24(.74)
	F		3.103	.071	.828	.607	2.177	.462

*p<.05, **p<.01, ***p<.001

a, b : Schaffé의 사후검증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자 소득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소득이 258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신체적 준비의식과 주거준비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준비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보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원을 가질수록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조미영(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문관리직의 사람들이 판매생산서비스직 종사자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많기 때문에 여가생활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3.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먼저 노인관련 프로그램수강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수강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 노후준비시기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관련 프로그램수강경험을 통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고 또한 빠른 노후준비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관련프로그램 수강 경험 기회가

<표 3>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후준비의식

N=723

		N	노후준비 시기	노후의 국가정책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여가준비	주거준비
			M(SD)	M(SD)	M(SD)	M(SD)	M(SD)	M(SD)
프로그램 수강경험	있 음	77	4.15(.71)	4.22(.55)	4.40(.55)	4.35(.50)	4.14(.62)	4.18(.80)
	없 음	646	3.97(.74)	4.18(.56)	4.40(.54)	4.32(.52)	4.13(.55)	4.22(.70)
	F		3.988*	.407	.000	.262	.046	.138
노인관련 언론매체	관심적은편	149	3.91(.81)a	4.11(.59)a	4.34(.56)a	4.27(.52)a	4.04(.60)a	4.16(.70)
	보 통	455	3.96(.73)a	4.18(.56)a	4.38(.54)a	4.31(.51)ab	4.13(.54)ab	4.22(.72)
	관심많은편	119	4.22(.62)b	4.30(.52)ab	4.56(.47)b	4.44(.50)b	4.24(.56)b	4.24(.70)
	F		7.134***	3.717*	6.342**	3.897*	3.992*	.468
노인과의 동거	없 음	374	3.98(.73)	4.16(.57)	4.39(.52)	4.30(.53)	4.14(.52)	4.21(.71)
	있 음	349	4.00(.75)	4.21(.55)	4.42(.55)	4.35(.50)	4.12(.60)	4.22(.72)
	F		.087	1.178	.554	1.894	.410	.052
동거경험의견	긍정적	194	4.04(.72)	4.27(.56)	4.45(.55)	4.36(.50)ab	4.16(.58)	4.11(.79)a
	보 통	108	3.89(.77)	4.09(.57)	4.32(.57)	4.27(.53)a	4.04(.60)	4.25(.59)a
	부정적	47	4.07(.78)	4.21(.42)	4.51(.50)	4.51(.40)b	4.10(.62)	4.62(.59)b
	F		1.718	4.038	2.511	3.695*	1.486	10.108***
노인과의 접촉빈도	일주일 미만	389	4.06(.73)	4.20(.55)	4.42(.51)	4.31(.50)	4.13(.56)	4.23(.71)
	일주일 이상	334	3.91(.75)	4.16(.57)	4.39(.57)	4.33(.54)	4.13(.56)	4.19(.72)
	F		7.711**	.903	.634	.257	.023	.458
접촉 의견	긍정적	425	3.96(.76)	4.22(.56)	4.43(.51)	4.32(.52)	4.18(.54)a	4.20(.71)
	보 통	267	4.01(.73)	4.13(.57)	4.35(.58)	4.31(.52)	4.04(.55)b	4.21(.73)
	부정적	31	4.17(.57)	4.16(.50)	4.47(.53)	4.47(.49)	4.12(.68)b	4.43(.61)
	F		1.339	1.713	1.740	1.384	4.990**	1.534

*p<.05, **p<.01, ***p<.001,
a, b : Schaffé의 사후검증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관련 언론매체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는 관심이 적은 사람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시기, 노후의 국가정책에 대한 의식, 신체적 준비의식, 경제적 준비의식, 여가준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관련 언론매체를 자주 접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노후준비에 관한 지식의 증가하여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에 대한 의견에서는 동거경험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보통인 사람보다 경제적 준비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주거 준비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동거 경험에 있는 경우 노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이정희 등, 2007) 이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과의 동거하면서 노인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되어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거 준비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경제적 형편만 허락하면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는 자녀에게 부담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동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거에 대해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과의 접촉경험에서는 일주일 미만마다 만나는 사람이 일주일이상마다 만나는 사람보다 노후준비시기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긍정적인 사람이 보통이나 부정적인 사람보다 여가에 대한 준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노후준비를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노후의 대부분 시간이 여가시간이므로 여가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성별에서는 신체적 준비행동과 정서적 준비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신체적 준비행동과 정서적 준비행동을 보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경자(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이 건강에 대한 정보나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한 질병에 더 많이 걸리고 홀로 지내는 기간이 길기 때

<표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

N=723

		N	신체적 준비행동	경제적 준비행동	정서적 준비행동	여가 준비행동
			M(SD)	M(SD)	M(SD)	M(SD)
성 별	남	357	3.27(.69)	3.19(.63)	3.56(.55)	3.34(.65)
	여	366	3.38(.70)	3.25(.60)	3.66(.54)	3.37(.62)
	F		4.321*	1.891	5.929*	.308
연 령	30대	282	3.09(.71)a	3.11(.61)a	3.64(.55)a	3.26(.65)a
	40대	241	3.39(.68)b	3.29(.68)b	3.65(.55)a	3.42(.63)b
	50대	200	3.59(.61)c	3.29(.51)b	3.52(.54)b	3.40(.58)b
	F		32.490***	7.148*	3.410***	5.219**
종 교	없 음	224	3.32(.71)	3.26(.55)	3.53(.54)	3.15(.62)
	있 음	499	3.33(.69)	3.20(.64)	3.65(.55)	3.44(.62)
	F		.012	1.661	7.395**	35.867***
학 령	고졸 이하	294	3.41(.70)	3.22(.59)	3.57(.57)	3.27(.61)
	대졸 이상	429	3.27(.69)	3.22(.64)	3.64(.53)	3.41(.64)
	F		7.109**	.101	2.651	7.449**
결혼상태	미 혼	96	3.06(.78)a	3.01(.72)a	3.58(.61)	3.32(.72)
	기 혼	610	3.36(.68)ab	3.26(.59)b	3.62(.54)	3.36(.62)
	결혼 후 독신	17	3.50(.49)b	3.05(.58)a	3.54(.44)	3.33(.56)
	F		8.487***	7.314***	.314	.188
직 업	전문관리직	168	3.35(.63)	3.24(.62)	3.70(.52)a	3.53(.60)a
	사무직	207	3.31(.63)	3.27(.57)	3.53(.54)b	3.35(.63)ab
	판매서비스생산직	174	3.28(.77)	3.20(.60)	3.57(.56)ab	3.23(.66)b
	주부·무직	174	3.37(.77)	3.16(.68)	3.66(.55)ab	3.30(.59)b
	F		.495	1.156	3.791**	7.293***
본인소득	없음	191	3.34(.75)	3.15(.65)a	3.63(.57)	3.29(.61)a
	257만원 이하	323	3.28(.69)	3.14(.36)a	3.58(.55)	3.31(.65)a
	258만원 이상	209	3.39(.65)	3.40(.52)b	3.63(.53)	3.46(.62)b
	F		1.664	13.548***	.864	4.535*
배우자소득	없음	273	3.37(.68)	3.24(.58)a	3.56(.57)	3.38(.62)
	257만원 이하	196	3.35(.71)	3.19(.61)ab	3.68(.53)	3.32(.66)
	258만원 이상	141	3.38(.65)	3.37(.59)b	3.64(.50)	3.37(.57)
	F		.103	3.963*	2.732	.615
주관적건강	나쁜편	82	3.28(.76)ab	3.11(.69)a	3.40(.57)a	3.24(.71)a
	보 통	421	3.27(.68)a	3.17(.61)a	3.58(.54)b	3.32(.61)ab
	좋은편	220	3.46(.69)b	3.35(.58)b	3.75(.51)c	3.45(.64)b
	F		5.795**	7.961***	13.514***	4.281*

*p<.05, **p<.01, ***p<.001

a, b : Schaffé의 사후검증

문예(Hanson & Wapner, 1994)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보다 크게 느껴 관리를 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노후의 고독에 대비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를 주변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보다 잘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연령에 있어서는 신체적 건강을 위한 준비 행동을 50대가 가장 잘하고 있었고 다음이 40대, 30대 순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보다 예민하게 생각하며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비해 30, 40대는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있어 50대보다는 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보다 40·50대가 경제적 준비와 여가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를 살펴본 박창제(2008)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40대가 경제적 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었고 다음이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 보다 가까운 40·50대는 곧 다가올 노후를 대비해 '절약하며 생활하고'/'경제적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한다.' 등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여가준비에 있어서 노후를 위한 사회봉사나 종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여가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준비에서는 50대가 30, 40대에 비해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대가 40대보다 정서적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는 김양이와 이채우(2008)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종교에 따른 노후준비행동의 차이를 본 결과, 정서적 준비행동과 여가준비행동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정서적 준비와 여가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배계희, 1989; 임희정, 2002; 정애리, 2007)와 일치하는 결과로 종교생활 자체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기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력에서는 신체적 준비행동과 여가준비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고졸이하인 사람이 대졸이상인 사람보다 신체적 준비를 보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준비행동은 대졸이상인 사람이 고졸 이하인 사람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조추용 등(200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교육수준은 생애과정에서 전반적인 부를 예측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Wakita 등, 2000) 여가 생활 자체가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인여가활동이 비용이 들지 않는 텔레비전 시청과 단순휴식활동이 많지만(박미석, 2004), 지금의 성인들이 노년기를 맞이할 때는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안정된 경제적인 자원의 뒷받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자보다는 결혼 후 독신인 사람이 신체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 후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 건강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혼자의 경우는 대부분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에 자신이 있어 적극적인 준비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혼이나 결혼 후 독신자보다는 기혼자가 경제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노후준비도가 높다는 황승일(2000)의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기혼자가 연금이나 보험, 저축을 하는 행위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일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준비행동 자체가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직업에서는 정서적 준비행동과 여가준비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관리직의 사람들이 사무직의 사람보다 정서적 준비를 보다 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집단이 여가준비를 가장 잘 하고 있다는 임재용(2008)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즉 전문관리직의 사람들이 노후에는 사회적 관

계와 직장동료와의 유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가준비행동에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의 사람들이 판매생산서비스직과 주부나 무직자보다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가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시간적 여유도 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인소득과 배우자 소득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경제적 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배문조, 2006; Dan, 2004)와 일치한다.

주관적 건강에서는 건강이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노후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계획을 잘 세운다는 Kim(199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자세가 적극적이어서 노후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도 잘 대처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5.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

노인관련 프로그램 수강경험에 따른 노후준비행동을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 수강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노후준비행동을 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수강경험이 있는 사람은 노후와 노인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므로,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서도 적극적인 준비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노인관련 언론매체에 대한 관심에 따른 노후준비행동 역시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 관심이 많은 사람이 노후준비행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노인관련 정보를 많이 접하는 사람이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에서는 동거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행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과의 동거를 통해 노인의 신체적 쇠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또한 노후의 고독감 해소를 위해서 가족과 대화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욕구를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노인과의 동거하는 중년들이 정서적인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배계희(1989)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노인과의 접촉의견에서는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정서적 준비와 여가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일관된 결과도출을 위해 추후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표 5> 노인관련특성에 따른 노후준비행동

N=723

		N	신체적 준비행동	경제적 준비행동	정서적 준비행동	여가 준비행동
			M(SD)	M(SD)	M(SD)	M(SD)
프로그램 수강경험	있 음	77	3.50(.67)	3.38(.57)	3.76(.57)	3.59(.67)
	없 음	646	3.31(.70)	3.20(.62)	3.59(.54)	3.32(.62)
	F		5.037*	5.704*	6.259*	11.728***
노인관련 언론매체	관심적은편	149	3.29(.66)a	3.12(.65)a	3.52(.57)a	3.27(.67)a
	보 통	455	3.24(.69)a	3.18(.60)a	3.60(.54)a	3.29(.61)a
	관심많은편	119	3.70(.65)b	3.48(.58)b	3.79(.52)b	3.69(.55)b
	F		21.089***	14.038***	8.581***	21.630***
노인과의 동거	경험 없음	374	3.28(.66)	3.20(.58)	3.56(.54)	3.33(.63)
	경험 있음	349	3.38(.74)	3.24(.65)	3.66(.55)	3.37(.63)
	F		4.030*	.520	5.581*	.719
동거경험 의견	긍정적	194	3.44(.76)	3.25(.66)	3.75(.54)a	3.43(.64)
	보 통	108	3.33(.72)	3.22(.67)	3.61(.55)ab	3.31(.62)
	부정적	47	3.27(.67)	3.21(.58)	3.43(.52)b	3.30(.59)
	F		1.325	.169	7.165***	1.530
노인과의 접촉빈도	일주일 미만	389	3.30(.68)	3.21(.62)	3.62(.55)	3.36(.65)
	일주일 이상	334	3.36(.72)	3.23(.62)	3.60(.54)	3.34(.61)
	F		.963	.741	.738	.666
접촉 의견	긍정적	425	3.35(.67)	3.26(.63)	3.70(.54)a	3.44(.63)b
	보 통	267	3.30(.74)	3.15(.60)	3.49(.52)b	3.22(.61)a
	부정적	31	3.25(.71)	3.18(.57)	3.42(.61)b	3.32(.65)ab
	F		.741	2.641	14.758***	10.445***

*p<.05, **p<.01, ***p<.001
a, b : Schaffé의 사후검증

V. 결론 및 제언

고령화 시대의 여러 가지 노인문제의 해결과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생애주기에 맞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누구보다도 긴 노년기를 준비해야 할 성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의식과 노후준비행동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30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72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노후준비 의식도 높고 실제로 준비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앞으로는 남녀 모두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노후준비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령에 따른 노후준비를 살펴보았을 때, 30, 40대에 비해 50대의 노후준비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현재 50대들은 부모부양을 책임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막대한 교육비 지출을

하면서도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과도기 세대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젊은 30, 40대는 이러한 과도기 세대를 보면서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곧 노년기에 접어들 50대를 위한 노후준비교육뿐만 아니라 젊은층이 노후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보다 실제적인 준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세대별로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사회경제적지위인 직업과 소득은 여가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활동에 꼭 경제적인 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더불어 여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노인관련 프로그램 수강경험이 있거나 노인관련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노인관련 지식과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노인과의 직접적인 동거 및 접촉경험이 노후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과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이 일치하지 않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 두 가지를 비교분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척도를 사용하여 두 요소를 비교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보다 현실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노후준비의식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 노후준비의식을 행동으로 이어주는 중간매개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강영숙(2005). **고령화 사회 중장년층 여성의 노후준비의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화(2005).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태(2004).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대한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요인연구. **소비자학연구**, 3(2), 37-57.

김양이·이체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수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표(2005).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노년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상공회의소(2005).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박미석(2004). 우리나라 노인의 은퇴후 여가선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07-122.

박정희(2007).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 중년여성의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선(2004).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창제(2008).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39-168.

배계희(1989).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문조(2006). **개인적, 심리적, 직업관련변인이 은퇴기와 은퇴 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말순(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명숙(2002). **중장년기 여성의 특성과 노후대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석진(2004). **중장년층 노후준비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은식(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 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종대(2002). **정년퇴직예정 공무원의 노후생활에 대한 의식조사연구 :부산광역시 퇴직예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나진(2006). **남녀고등학생의 노화관련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호(2007). **고령화사회의 노후대책과 노인복지 서비스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우복(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모·이신영(2005). 노인복지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가을호), 259-283.

이정화·이옥순(2007). 중년층의 노년기 교육에 대한 욕구분석. **한국노년학연구**, 17, 85-104.

이정희·안영식·윤소정(2007). 노인과의 동거 및 노인에 대한 교육경험이 노화지식 및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2), 345-355.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행숙(1996). **주부의 노후생활 준비의식, 행동 및 경제대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희경(2003). **중년층 직장인의 노후생활대책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은(1999). **도시저소득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신·김진선·김기순(2002).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노년학**, 22(1), 31-41.

임장순(1990). **도시인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의식조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재용(2008). **중장년층의 직업별 노후준비에 대한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희정(2002).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민자(2003). **청장년층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진우(2002). **중년층의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애리(2007).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2006). **중년층의 노후생활 대책에 관한 연구-전주시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추용 · 송미영 · 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봄호), 135-156.
- 차경옥 · 박미연 · 김연주(2008).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 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 최성재(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329-352.
- 최점수(1994). **직장인의 노후생활준비의식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9). **2009 고령자통계**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홍성희 · 박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an, A. A.(2004). What are people doing to prepare for retirement? Structural, personal, work, and family predictors of planning. Ph. 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Hanson, K & Wapner, S.(1994). Transition to retirement: gender differences. *Interna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9(3), 189-207.
- Kim, M. H.(1992). Retirement attitudes, preparations, conceptualiz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retirement among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s in mid-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cKenna, J. S. and Sharon Y. Nickils(1988). Planning for retirement security: What helps or hinders women in the middle yea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2), pp.153-164
- Wakita, S., Fitzsimmons, V.S., & Liao, T. F.(2000). Wealth: Determinants of savings net worth and housing net worth of pre-retired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1(4), 387-418.

접수일 : 2009년 11월 13일
 심사일 : 2009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2월 11일